

# 한, 일 여성 전통 복식의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 특성 고찰

이 진 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An Inquiry into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Korean and Japanese Women's Costumes

Jin-Min, Lee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0. 4. 5, 심사(수정)일: 2010. 4. 19, 게재 확정일: 2010. 4. 24)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Japanese women's traditional costumes in Modernization that happened in Korea and Japan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20th century. The meaning of modernity has indefinite and comprehensive aspects, and the essence of modernity is found in searching for new changes. Modernization is the process of realizing modernity, and costume modernization can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seeking new changes, functionality and popularization of costume. As Korean and Japanese costumes went through modernization, western costume became daily clothes of both two countries. The modernization of Korean and Japanese women's traditional costumes were achieved in the two directions. First, Korean and Japanese women's traditional costumes changed to search for functionality modeled of western costume. Korean costume went through dress reform movement and were generally simplified. Japanese costume made a change of wearing mode and introduced new garment like 'Hakama(袴)'. Second, the new style of traditional costume appeared. In Korea, 'Saenghwal Hanbok' was shown in the late 20c and in Japan, 'The reproduced dress(更生服)' and 'The women's standard dress(婦人標準服)' were shown in the late 1930's and the early 1940's. These kinds of new garment style were the more active compromis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Key words: aesthetic characteristics(미적 특성), Japanese women's costumes(일본 여성 복식), Korean women's costumes(한국 여성 복식), modernization(현대화), modernity(현대성)

## I. 서론

19세기 말 개항이후, 한국과 일본의 복식문화는 두 갈래의 길을 걸어왔다. 하나는, 양복이 도입되어 일상화되는 과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고유의 전통복식이 일상에서 사라지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본격화된 서구의 위세에 대응하여 한국의 민족주의론과 일본의 근대화론이라는 대별된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식 변화에 나타난 공통적 현상으로, 이는 곧 양국 복식이 걸어온 현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민족 주의론과 근대화론으로 특징지어진 한국과 일본의 상호 대별된 반응은 오랜 갈등과 지양의 해결 과정을 통해 양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여건의 보편성 및 특수성을 생산해내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복식 현대화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하고 유일하게 식민지 경영에 나섰던 국가로, 서양의 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명개화에 성공한 후 서양의 방식 그대로 조선에 개화를 강요하였다. 이에따라, 19세기 말 서구 열강에 의한 개항 이후,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에서는 동·서양의 대립적 구도 외에 서양화된 일본의 영향이 공존하는 복합적 구도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한국 문화 전반은 물론 복식 문화 변천에 유무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 복식 연구는 복식사적 관점에서 19c 말 이후 양복의 수용 및 기존 복식의 변천에 대한 고찰<sup>1)</sup>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복식 변천 요인을 고찰한 연구<sup>2)</sup>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일본 복식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보다 미비한 실정으로, 개화기 및 20c 초반의 복식 변천 양상에 관한 사적 고찰<sup>3)</sup>이 이루어진 정도이다. 한·일 복식에 대한 비교 연구<sup>4)</sup>에 있어서도 전술한 연구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비교의 시대적 범위 또한 19세기 말~20세기 초로 한정되어 통시적, 공시적 측면에서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비교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세기 말 이후 20세기 전반에 걸친 한국과 일본의 복식 변화 양상을 양국 복식의 현대화로 규정하고, 그 과정에 나타난 한·일 복식의

현대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양국 복식의 현대성을 규명하고, 전통 복식의 변화 및 미적 특성을 비교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복식의 현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일 복식 양식의 조형적 특성을 통시적, 공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비교,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 복식 문화 연구 및 타 문화와의 비교 복식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한·일 복식의 비교 연구를 통해, 세계 복식사의 일부분으로서 동양의 전통 복식이 현대화되어 가는 과정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한국 복식 문화에 대한 재인식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서구적 가치에 대응하는 동양 복식의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 제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식의 현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하여 예술, 철학, 미학 관련 서적 및 선행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른 양국 복식의 현대화 양상을 고찰하고, 현대성을 논의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한국과 일본 공히 개항이 이루어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 전통 복식 현대화의 구체적 양상을 전통 복식의 자체의 변화와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의 등장으로 구분하여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현대성과 현대화의 개념

‘현대’와 연결되어 종종 등장하는 ‘현대성’이라는 용어는 정의를 내리기에 쉽지 않은 개념 중 하나이다. ‘현대(Modern)’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부사형 ‘modo’에서 기원한 것으로 최근, 지금, 당대의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대성의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기적인 현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대를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암흑기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사유를 시작했던 르네상스로부터 오늘날까지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너무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 예술 등 어떠한 한 분야에 한

정하여 시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정착된 시점을 그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제국주의의 시대로부터 현대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이, 현대의 시작이 정확히 언제인가에 관하여는 경우에 따라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각 문화권, 종교는 각 민족에 따라 역사의 발전 혹은 전개가 다르므로 일정한 시기에 맞추어 그 출발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며, 둘째, 그 기점을 자본주의의 어떤 국면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sup>5)</sup>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와 한국, 일본의 현대는 그 시작이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분야와 관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즉, 정치 경제 발전의 종합적 시각에서 볼 때, 서구의 현대는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를 현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19세기 말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와 현대성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 하버마스에 따르면<sup>6)</sup> 이들의 연관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현대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현재'와 더불어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성은 현대가 '현대'일 수 있는 근거를 내포하고 있는 현대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체 역사의 지평으로부터 자신이 처해있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역사 철학적 시각으로, 그 추동력은 변화와 개혁의 의지이며, 자신의 시대에 대한 자의식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현대는 삶의 의미와 행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모범이 되는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시대로, 이 경우는 자신의 규범성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새로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현대성이란 결코 한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불확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추구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이는 철학적 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독특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복합체로도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대화란 현대성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

즉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대성이 구체화 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구의 현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긴 시간에 걸쳐 내생적으로 이루어져 온 데 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현대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타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측면이 크다. 한국과 일본의 현대의 시작을 19세기 말 이후로 보는 것도 그때부터 서구와의 접촉이 본격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광범위한 수준의 서양문화와의 접촉이 있었으며 동서 문화가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어떠한 의미에서 동양의 현대란 동양이 서양을 인식하게 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서양인들에게는 동양이, 동양인들에게는 서양이 명백해졌던 것이라 할 수 있다.<sup>7)</sup> 그러한 '인식'의 명백화 과정이 곧 현대화였으며, 그것은 동양의 사회와 사람, 사물 전반에 이르기까지 직, 간접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복식 또한 변화의 한 대상으로서 현대화에 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복식에 있어서의 현대성 및 현대화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추구를 근본으로 하는 현대성의 개념은 통시적 관점에서 그 전 시대와 다른, 복식 형태에 있어서의 변화와, 또 '패션(fashion)'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식 현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sup>8)</sup>

일반적으로 서양 패션의 현대성은 변화 추구, 기능성 추구, 복식의 민주화라는 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윤희<sup>9)</sup>는, 서양 패션에서 본 현대성을 새로움에 가치를 둔 변화의 가속화, 전통에 반대하는 복식 개량 운동의 전개, 과학과 기술 활용으로 인한 복식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개인 패션 디자이너의 등장, 평면적 형태의 의복의 등장으로 설명하였다. 변화 추구 차원에서 현대성은, 패션 그 자체로서의 변화 속성, 즉 이전 시대와는 구별되는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선호로서, 새로움에 가치를 둔 변화의 가속화로 이해 될 수 있다. 반면 '과거와의 단절'에 가치를 둔 변화성은 전통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복식 개량에 대한 요구로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복식 개량은 전통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측면에

서 변화 추구 차원으로 이해되는데, 복식 개량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였던 것이 궁극적으로 기능적인 복식 이었다는 측면에서 기능성 추구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식의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현대성은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의복의 생산과 공급이 발전하고, 패션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 획득된 차원으로, 기성복이 발전하고 대중적 유행이 나타났으며, 패션이 산업화 되는 현상들로 표출되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복식에서의 현대성, 현대화는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가?

한국의 역사인식에서 현대의 개념이 형성된 것은 개항 이후 서구 문화가 유입의 결과이며,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현대성'은 불가피하게 서구 중심적 편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 3국은 서구 문화 수용에 대한 대응 방식이 각기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3국 모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귀결되어, 이후 서양의 우월한 물질 문화와 동양의 우월한 정신문화를 절충시키는 방향으로 현대화가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동양의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복식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 19세기 말 서양 복식의 유입 이후 전통 복식과 서양 복식의 혼용, 절충의 기간을 거치며 전통 복식은 예복화되고, 서양 복식이 일상복으로 정착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현대화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한, 일 전통 복식은 전통과의 결별, 의복의 기능성 추구, 패션 디자이너의 출현과 기성복의 발달, 유행의 대중적 전파 등을 통해 현대화하였으며, 서양 복식 및 서양 현대성의 영향 아래 변화 추구, 기능성 추구, 복식의 민주화 차원의 현대화를 이루어왔다.

### III. 한, 일 여성 복식의 현대화와 현대성

#### 1. 한국 여성 복식의 현대화와 현대성

개화기 이후 유입된 새로운 서양의 복식은 한국의

전통적 복식 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같은 시기의 사회, 문화적 현대화와 더불어 복식 양식에 있어서도 현대화의 큰 출기를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복식은 현대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개화기(1876~1910), 곧 현대화의 출발점이자 현대화 초기의 복식의 현대성은 변화 추구와 기능성 추구의 측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새로운 서양복의 유입은 변화보다는 전통을 고수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기존의 관습과 의생활에 적지 않은 혼란과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제(衣制) 개혁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점차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변화 추구의 현대성이 획득되었다. 특히, 서양복의 유입 이후 기존의 전통 복식은 서양복에 비해 비실용적인 의복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그와 같은 비실용성을 탈피하고 기능성 및 활동성을 획득하는 것이 의복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한 인식과 함께 서양복에 대한 거부감 또한 존재하였으므로, 기존의 복식을 외면하고 서양복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기존의 복식에 바탕을 둔 의복 개량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에따라 실제적인 형태의 개량이 추진되면서 복식의 기능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현대성의 측면이 형성되었다.

1910~1940년대 중반에 이르는 일제 강점기의 한국 복식은 고유복식과 외래복식이 병용되는 가운데 복식의 이중구조가 형성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는 복식 현대성의 측면이 보다 가시적으로 획득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의생활의 변화를 주도했던 흐름은 전통 한복의 개량이었는데, 의복 개량 운동을 통해 제안된 조끼허리 통치마와 긴저고리는 복식 현대성의 기능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1940년대 일제 강점기 말의 한국은 일본의 영향 하에 전시 체제로 돌입하였는데, 이 시기 양국 여성들에게 널리 착용되었던 의복으로 몸뻬(もんべ)가 있으며, 전시에 맞는 검소한 차림이 강조되면서 <그림1><sup>10)</sup>과 같은 원피스 형의 간단복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해방과 함께 연이은 6.25 전쟁의 혼란기 속에서 한국 복식은 서양복의 착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됨으로써 변화 추구 차원에서의 복식의 현대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획득되었다. 이 시기에는 양장점과 디자이너가 최초로 출현하였고, 전시대에 비해 다양해진 양장 아이템이 '유행'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적 경향에서 탈피, 변화와 새로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복식 현대성이 실현되었다. 기존의 전통 복식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량이 시도되어, 한복과 양장을 혼용하거나, 전통 한복 자체의 형태 및 착장 방법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기능적 차원에서의 복식 현대성이 계속해서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 획득되었다. 특히, 의복의 개량은 조형적 측면에서 서양복식에 보다 가까운 형태, 즉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서양복의 형식적 특징을 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긴저고리와 무릎까지 오는 짧은 치마의 새로운 비례나 어깨허리가 달린 통치마, 고름을 없애고 서양식 단추를 도입한 저고리 여밈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기능적 차원에서의 현대성이 실현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개화기 이후 20세기 전반기 한국 여성복식의 현대성이 변화의 추구나 기능성 추구의 측면이 중심이 되었다면 60년대 이후 20세기 후반의 복식 현대성은 복식의 민주화 차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1960년대, 개인 디자이너가 등장, 맞춤 양장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 양장 착용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단순히 전통 한복을 벗고 서양복을 착용하는 변화 추구의 차원을 넘어서 '유행'이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되면서 양장 스타일의 대중적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양 모드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그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성복이 등장, 활성화 됨으로써, 보다 대중적인 차원의 양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수많은 문화학자, 사회학자, 디자인, 예술사학자들이 20세기를 '대중'의 시대로 정의하였고<sup>11)</sup>, 대중 시대의 도래는 결과적으로 현대의 중산층 확대와 현대성의 표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sup>12)</sup>, 보다 대중적인 차원의 양장 시대의 도래는 한국 복식 양식에 있어서 이전 시대와는 구별되는 현대성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1970~80년대는 복식 민주화 차원의 현대성이 중점적으로 획득되었다. 이미 시작된 대중 패션의 시대

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본격화함으로써 패션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한국 현대 패션은 서구 패션의 단순한 모방단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모드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전통 한복은 유행과 기능성에서 밀리면서 예복으로서의 장식적 성격이 강해지는 한편, 전통 한복에 대한 재인식 및 전통 한복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로서 생활 한복이 등장, 보급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패션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다양한 스타일이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복식의 민주화 차원의 현대성이 표출되었다.

100여년에 걸친 한국 복식의 현대화를 통해 한국 여성 복식은 변화 추구, 기능성 추구, 복식의 민주화 차원의 현대성을 획득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현대복식은 서양복식의 일상화로서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주체적, 창의적인 한국적 패션 디자인이 창조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국 여성 복식의 현대화와 현대성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2. 일본 여성 복식의 현대화와 현대성

메이지 유신(1868) 이후 유입된 새로운 서양의 복식은 일본의 적극적인 개화 의지를 바탕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개화 초기 서양복식에 대한 수용과 거부의 의지가 비교적 강하게 충돌하였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고유복식과 서양복식 간의 형식적 유사성을 내세우며 수용의 경향을 보다 강하게 보였던 것이 특징으로, 변화 추구 차원의 현대성이 나타났다. 관복, 군복 등 공식적인 의복을 서양복식으로 바꾸는 의제 개혁과 로쿠메이칸(鹿鳴館)<sup>13)</sup> 시대를 거치는 동안 변화 추구 차원의 현대성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이 시기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양장 착용 풍속이 확산되었으나,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기모노가 착용되면서 화복(和服)과 양복의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복식의 이원화는 194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서양 복식의 착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변화 추구의 복식 현대성이 획득되었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양 복식의 유입 이후 기존의 전통 복식은 간소화 되었으며, 기능적인

&lt;표 1&gt; 한국 여성 복식의 현대화와 현대성

복식현대화 시기	사회문화적 배경	현대화 양상	현대성
개화기 (1876~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화도조약(1876), 개항</li> <li>갑신정변, 갑오경장</li> <li>- 갈등과 개혁의 시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양복 수용, 의제(衣制)개혁</li> <li>의복개량운동-통치마, 긴저고리</li> <li>백의금지, 장옷폐지운동</li> </ul>	<p>① 변화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양복 수용</li> <li>- 전통고수경향의 탈피</li> <li>- 새로움에 대한 선호</li> <li>- 양장착용 증가</li> </ul>
일제 강점기 (1910~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제 강점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복개량운동</li> <li>한복과 양장의 이중구조</li> <li>일제 강점기 말, 전시체제로 인한 의생활 통제-몸빼유행</li> </ul>	<p>② 기능성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기 전반기 현대성의 중심축</li> <li>- 위생과 활동면에서 기능성 중시</li> <li>- 지속적인 의복개량운동</li> </ul>
해방 및 전후 혼란기 (1945~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민지배로부터 해방</li> <li>6.25 사변(1950), 남북분단, 미군정시대</li> <li>기초 산업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호물자 위주의 의생활</li> <li>양장 착용의 증가</li> <li>양장, 전통한복, 개량한복 공존</li> <li>양장점, 디자이너 등장</li> </ul>	<p>③ 복식의 민주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기 후반기 현대성의 중심축</li> <li>- 양장착용인구증가</li> <li>- 디자이너의 등장</li> <li>- 기성복의 보급</li> <li>- 유행의 대중적 전파</li> <li>- 패션의 산업화</li> </ul>
경제 개발기 (1961~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화</li> <li>경제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양장의 유행</li> <li>한복의 퇴조, 예복화</li> <li>기성복과 청바지 열풍</li> </ul>	
고도 경제 성장기 (1981~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성장으로 생활수준 향상, 다양화</li> <li>남녀평등사상 대두</li> <li>스포츠에 대한 관심고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패션의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li> <li>캐주얼웨어 시대, 생활한복등장</li> <li>서구패션 모방에서 벗어나 독자적 모드 정립시작</li> </ul>	
경제 안정기 (199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화의 시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유행의 시대, 컬렉션 정기 개최</li> <li>디자이너의 해외 진출</li> <li>한복의 예복화 정착</li> </ul>	

의복으로의 변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기능성 추구는 서양복이 일상복화 되기 이전인 20세기 전반기에 중시되었던 차원으로, 양복에 비해 비실용적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던 전통 복식에 기능성 및 활동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복식 자체의 개량을 통한 기능성 추구 보다는 본래의 전통복식을 착용하면서 착장 방식의 간소화 또는 화양 절충 형식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1920년대 말 ~194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전시체제는 여성 의복에 있어서 기능성 및 활동성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일본은 <그림 2><sup>14)</sup>의 간생복(更生服), <그림 3><sup>15)</sup>, <그림 4><sup>16)</sup>의 부인표준복(婦人標準服)과 같은 화양절충식 의복을 제정하여 착용을 권장하였다. 특히 부인표준복의 한 복종(服種)이었던

몸빼의 대대적인 보급은 일반 여성들의 바지 착용 및 양장 착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종전 이후 일본 복식의 급격한 양장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변화 추구 차원의 현대성이 획득되었다. 당시 간생복이나 부인표준복, 몸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활동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복의 구성적인 면에서 서양식 입체적 구성을 일부 도입하거나 의복의 전체적인 폭을 줄이고, 여밈을 간소화 하는 등 전반적인 간소화 경향을 보여주었고, 특히 몸빼를 통해 바지를 여성의 겉옷으로 착용함으로써 여성의 신체성과 활동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기능성 추구 차원의 현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1945년 종전 이후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는 기초 산업화를 통해 일본의 경제 성장의 기초가 다

〈표 2〉 일본 여성복식의 현대화와 현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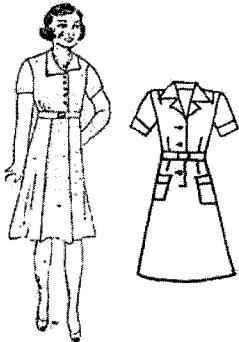
복식현대화 시기	사회문화적 배경	현대화 양상	현대성
개화기 : 메이지시대 (1868~1912)	· 메이지유신(1868) · 신분제도 개편	· 서양복 수용 · 기모노 색과 무늬가 화려해지는 경향 · 화풍(和風)과 양풍(洋風)의 이원화	<p>① 변화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양복 수용</li> <li>- 새로움에 대한 선호</li> </ul>
제국주의시기 : 다이쇼시대 (1912~1926)	· 대한제국 병합 · 부국강병론 · 문명개화정책 추진 · 제1차 세계대전	· 모던보이, 모던걸의 양장 · 화복과 양장의 이중구조 · 원피스형 간소복 아빠빠 유행	<p>② 기능성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과 활동면에서 기능성 중시</li> <li>- 서양복식 형식의 적극적 수용</li> <li>- 의복의 간소화 경향</li> </ul>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기 : 쇼와 초기 (1926~1945)	· 만주사변(1931), · 중일전쟁(1937), · 태평양 전쟁(1941~1945)	· 화복과 양장의 이중구조 · 전쟁시기 의생활 통제, 양장 보급 주춤 · 부인표준복 제정, 생생복 등장 · 전쟁말기 봄빼 대유행	<p>③ 복식의 민주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기 중반 이후 현대성의 중심축</li> <li>- 양장착용 인구증가</li> <li>- 디자이너의 등장</li> <li>- 기성복의 보급</li> <li>- 유행의 대중적 전파</li> <li>- 패션의 산업화</li> </ul>
전후 복구 및 산업화기 : 쇼와 중기 (1945~70년대초)	· 전후복구 주력 · 기초산업화 추진 · 경제 성장 · 동경올림픽(1964)	· 패전직후 군복, 봄빼 착용 · 본격적인 양장화 경향 · 디자이너 등장, 기성복 산업 시작 · 기모노의 예복화	
고도 경제성장기 : 쇼와 후기 (70년대초~1989)	· 본격적인 산업화 · 고도 경제 성장	· 양장의 일반화, 다양한 모드 유행 · 대량패션 시대, 디자이너 해외 진출	
경제성숙기 : 헤이세이시대 (1989~현재)	· 글로벌시대 · 정치적, 경제적 성숙	· 탈유행의 시대, 스트리트 패션 · 패션컬렉션 정기 개최 · 디자이너 해외 진출	

겪진 시기로, 전반적인 사회 변화와 함께 일본의 복식 양식 또한 본격적인 양장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기모노는 일상복의 자리에서 물러나 예복화 되었고 양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개인 디자이너의 등장과 패션쇼 개최 및 다양한 양장 아이템들이 ‘유행’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변화와 새로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변화 추구 차원에서의 복식의 현대성이 획득되었다.

특히 종전 이후 20세기 후반의 일본 복식의 현대성은 복식의 민주화 차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1980년대 일본은 경제 성숙기에 들어선 사회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패션 컨셉트를 제시하는 국제적인 패션국으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 일본 패션은

기존 서구 중심의 복식전통에 도전하는 동양적 미의식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서양 모드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그 전파 속도가 가속화 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성복이 등장,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대중적인 차원의 대량 패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대중 패션의 시대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본격화를 통해 패션 산업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패션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다양한 스타일이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복식의 민주화 차원의 현대성이 획득되었다.

일본 여성 복식의 현대화와 현대성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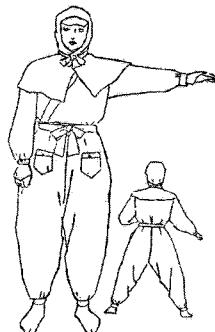
〈그림 1〉 간단복  
韓國女性洋裝變遷史, 1990,  
p. 226, 230



〈그림 2〉 1939년 간생복,  
概說日本服飾史, 2000,  
p. 124



〈그림 3〉 전시체제하의  
부인표준복  
洋服と日本人,  
2001, p. 57.



〈그림 4〉 부인표준복  
활동의(돌빼)  
日本服飾史要,  
1956, p. 278.

#### IV. 한, 일 여성 전통 복식의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 특성

한·일 여성 전통 복식의 현대화 양상에 대한 3장의 고찰을 바탕으로, 19세기 말 서양 복식의 유입 이후 양국 전통 복식의 현대화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 복식 자체의 변화로, 양복 수용 이후 양복에 대한 거부, 공존, 혼용, 절충의 이중 구조를 거치며 점차 일상복의 자리에서 물러나 예복화 되었던 것이고, 둘째는, 복식 현대성의 기능성 추구 차원과 관련된 측면으로, 전통 복식에 양복적 요소를 도입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전통적 복식형<sup>17)</sup>을 창조해낸 것이다. 본 장에서는 양국 복식의 현대화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형식과 장식성의 조형적 시각에서 한, 일 여성 전통 복식의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 1. 한국 여성 전통 복식의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 특성

###### 1) 전통 한복(韓服)

###### (1) 형식

복식의 현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저고리와 치마

의 2부식으로 구성된 전통 한복의 기본 형식은 변함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된 복식 개량 논의와 함께 복식의 기능성이 강조 되면서 한복의 전반적인 간소화 경향이 나타났고, 기능성 확보를 위해 복식의 실루엣이나 세부적인 구성에 서양복의 요소를 차용하게 되었다.

### a. 저고리

개화 초기 복식 개량의 방향은 저고리의 길이를 늘려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00년대를 전후한 구한말 여성의 저고리는 치마 허리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길이가 매우 짧았으며, 품도 몸에 꼭 맞을 정도로 좁았다. 소매 또한 어깨와 팔에 꼭 끼는 직배래 형식이었고, 안고름과 걸고름이 같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같은 짧은 저고리는 1910~20년대를 거치면서 개량의 주 대상이 되어 길이가 점차 길어지게 되었다. 저고리의 개량은 길이 변화 외에도 품을 키우고, 뒷중심과 앞가슴에 주름을 잡아 여유를 주고, 깃은 약간 넓힌 후 안 셀까지 내려 달며, 고름 대신 끈이나 단추를 달아 여미는 등 양복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개량을 통해 기능성은 증대되지만 한복의 고유미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개량 초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에 따라 1920년대 초까지는 기존의 짧은 저고리와 길어진 개량 저고리가 동시에 입혀졌고, 1920년대 말 경에 이르러서야 짧은 저고리가 거의 사라지고 치마길이에 상관없이 긴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 일반화 되었다.

1930~40년대 저고리는 화장이 점차 짧아지고 배 래에 곡선이 생겼으며, 일명 '전도사 저고리'라 하여 가슴에서 허리사이 정도로 길이가 길어지고 품도 풍족한 형으로 변하였으며, 고름 대신 브로치를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실용성과 간편함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한 브로치는 그 장식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여밈의 기능 뿐 아니라 마치 서양복의 액세서리와 같은 역할로서 유행하게 되었다.

품이 넉넉하고 길이가 긴 형식으로 유지되던 저고리는 1960년대 이후로 다시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1950년대까지는 한복을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비

율이 높아 기능적인 측면이 중시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60년대 이후 다시 짧아지는 것은 한복이 일상복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60년대를 걸쳐 점차 일상복에서 밀려나게 된 한복은 70년대 들어 완전히 예복화 되었고, 이후 길이가 짧아지고, 고름이 길고 넓어지는 등 전통 저고리 형식에 다시 근접하였다.

### b. 치마

전통 치마는 허리말기와 끈이 달려있고 자락이 트여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 치마의 개량은 길이가 긴 자락치마와 길이가 짧아진 통치마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자락치마는 옆이 트인 전통적인 치마 형태이고, 새롭게 등장한 통치마는 치마의 트임을 막아 통으로 하고 길이를 짧게 한 것이었다.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자락치마는 옷감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활동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평가되어 이를 고쳐 간편한 것으로 고안해 낸 것이 바로 통치마였다. 특히 통치마에서 주목되는 것은 서양식 어깨허리를 단 것으로, 이는 착용 방식에서부터 전통 치마의 형식과 구별되었다. 즉, 전통 치마는 말기를 달아 허리나 가슴에서 둘러입는 드레이퍼리 형식을 취한 반면 통치마는 서양 남성의 조끼 모양을 고안하여 만든 허리를 어깨에 걸쳐 입음으로써 유동적인 드레이프성이 축소되고, 비교적 고정적인 외관을 유지하는 서양복의 형식적 특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특징이며, 비교적 규칙적인 주름을 넓은 폭으로 잡아 전체적인 폭을 간소화함으로써, 전통 치마에 비해 활동적인 측면이 보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c. 내의류

저고리와 치마의 형식이 변화하면서 속적삼이나 다리속곳, 바지, 단속곳 등 여러벌을 갖추어 입던 속옷의 형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속치마를 대신하여 가랑이가 막힌 통이 넓은 단속곳이 착용되었고, 이 또한 통치마 속에는 통이 좁고 짧은 형태로 착용되었다. 상의는 속적삼을 대신하여 폐리야스 셔츠가 등장하였는데, 1920년대 이후 상류층을 중심으로 점차 착용이 증가하였다. 즉, 의복 개량을 통한 결옷의 변화는 속옷

의 변화를 가져왔고, 점차 양복과 유사한 복종의 구성 및 착용 형식에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 d. 저고리와 치마 길이의 상관관계

저고리와 치마 형식의 개량과 함께 상, 하의 길이의 상관관계 또한 변화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전통 복식에서 저고리와 치마의 길이는 부적 상관 관계를 보여왔다. 즉 저고리가 길어지면 치마가 짧아지고, 저고리가 짧아지면 치마가 길어지는 것이었는데, 의복 개량 과정에서 저고리는 전시대에 비해 계속해서 길어지는 반면 치마는 반대로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전의 프로포션 관계와 반대되는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동안 계속되었는데, 1950년대 후반 저고리는 가장 길어지고 치마는 가장 짧아진 때를 기준으로 일상복의 양장화가 본격화되었고, 이후로는 다시 저고리는 짧아지고 치마는 길어지는 경향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전통 한복이 일상복의 자리에서 물러나 예복화됨에 따라 활동성, 기능성에 대한 기대는 줄어 들었고, 오히려 예복화에 따른 장식성이 증대되면서 개량 논의 이전의 전통 형식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장식성

한국 전통 복식의 색채는 음양오행원리에 따라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복식의 색은 음양오행원리에 따라 색채 선정 및 배색이 이루어졌는데, 저고리와 치마의 색은 서로 다른 색으로 하는 것이 전통적이었다. 그러나 개화 초기, 의복 개량을 통해 통치마 저고리가 보급되면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일반화되었고, 상하의에 같은 색을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개화기 신여성들 사이에서는 상하 동색(同色)의 한복을 착용하는 것이 확산되었는데, 이는 2,30년대 일제 강점기에 백의 금지, 색의(色衣) 권장, 상하 동색 사용 등이 권장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상하 동색의 한복은 마치 양장의 수트를 착용한 것과 같은 연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는데, 당시 착용되던 원피스 형식의 드레스나 테일러드 수트 등의 양장이 상하 동색인 경우가 많았

으므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양장을 착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장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채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다.

1960~70년대 한복의 색채는 더욱 다양하고, 상하 동색의 한복이 계속해서 유행하였으며, 고름 대신 후크나 단추를 달아 여미거나, 브로치를 착용하는 등 양장의 일반화에 따른 서양 복식의 장식적 특성이 도입되었다. 한복의 예복화는 일상복으로서의 실용성에 대한 요구를 약화시키면서 장식성을 강화하였으며, 금박, 기계자수, 채연, 무늬 붙이기, 치마폭에 그림 그리기 등 한복 장식의 재료, 방법, 부위, 양상에 있어서 과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19)</sup> 현재 상하 동색의 한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복의 예복화로 패션성이 더욱 강해지면서 음양오행에 의한 전통적인 색채 사용 및 상징적 측면은 매우 약화되었다.

#### 2)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

19세기 말 양복 수용 이후, 한복이 일상복의 자리를 양복에 내어주기 까지 한복의 비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개량 논의가 계속되어 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논의는 양장의 일상복화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인 생활한복의 출현으로 재고되었다.

생활한복의 용어개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일관된 합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의 정의에 의하면:‘전통 한복의 탈착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용시의 답답함, 작업시의 거추장스러움 등 전통 한복의 단점을 보완한 한복’<sup>20)</sup>이라는 전통 한복에 바탕을 둔 견해와‘이전까지의 개량한복의 사용자가 일부 계층에 제한되고 일상복으로 착용이 매우 저조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게 디자인 된 옷으로 양복에 한복적인 요소를 응용한 패션’<sup>21)</sup>이라는 서양 패션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공존한다. 본 연구에서 생활한복은 복식 현대화의 한 결과물로서, 전통 복식의 예복화 이후 현대복을 포괄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복을 바라보자 했던 시도라 생각되며, 심미적인 면에서는 전통 한복의 전형적 형태에 대한 고

정적 이미지를 탈피, 새로운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였고, 실용적인 면에서는 착장 방식의 변화, 소재 및 관리상의 편의 등 현대 기능적인 의복으로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1) 형식

일반적으로 생활한복은 저고리와 치마 혹은 저고리와 바지의 전통적인 2부식 구성을 계승하면서 부분적으로 서양복의 형식적 특성을 도입하였다. 그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생활한복은 그 재단방식에서 전통적인 직선적 평면재단에 부분적으로 서양식 패턴을 접목하는 절충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래 전통 한복의 형식은 인체 곡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면 재단으로, 인체에 작용되어야 비로소 여유로운 공간과 자연스러운 입체미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생활한복의 경우, 디자인에 따라 서양식의 곡선적 진동선이나 셋 인 소매를 사용한다거나, 프린세스 라인, 닉트 등의 구성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서양 복식의 구조적 형식을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생활 한복은 의복의 여밈이나 치수 설정에 있어 어느정도 고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양복식의 한정적 명료성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활한복 저고리는 착탈의 용이함과 기능성 확보를 위해 폭이 넓고 긴 걸고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변형된 약식 고름이나 단추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마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허리끈 보다는 단추나 지퍼 등 서양복의 여밈 양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고정성은 생활한복에 치수 체계의 도입을 가능케 하였고, 제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3~4 가지 정도의 치수체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즈 개념, 곧 규격 치수의 도입은 전통 한복에 서양 복식의 형식적 특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접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양복은 신체 구조를 최대한 반영한 복식 형식으로 각 의복마다 둘레 및 길이에 대한 치수 제한이 명확하다. 이에 비해 전통 한복은 비구조적, 평면적 형식으로 치수 설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특징이었으므로, 생활한복이 채택한 치수

규정은 전통한복의 가변적인 여밈과 융통적인 치수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한복의 치수 체계가 3~4가지 정도로 비교적 유동적이고, 전통적인 셀을 그대로 사용하며 저고리 등술에 여유 분량을 충분히 주고 있는 것 등은 기본적으로 한복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통 치마의 경우 한 장의 평면적인 옷감을 풍성하게 둘러입는 착장 형식으로, 비구조적, 비한정적인 모호성을 미적 특징으로 한다. 이는 한국의 '싸는 문화'곧 보자기 문화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동양 복식 형식의 모호성을 충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생활한복은 치수 제한 및 부분적인 서양식 구성 방식을 통해 절충적으로 형성된 반제한적 공간에 몸을 담는 형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서양적 문화개념의 '담는 문화'로서 테일러드(tailored) 복식으로 대표되는 한정적이며, 폐쇄적인 복식 형식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장식성

전통 한복에서는 음양오행에 따른 오방색의 정색과 간색이 주로 사용된 반면, 생활한복의 경우에는 색채 운용의 철학적, 상징적 측면이 약화되고, 순수한 장식적 목적에서의 색채 사용이 이루어지면서 매우 다양한 색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순수한 장식적 목적에서의 색채 활용 측면이 강조되면서, 자연적인 색상, 원색보다는 파스텔톤이 많이 보이는 등 다양한 색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자연주의적인 색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천연재료인 감, 치자, 황토, 쑥 등으로 염색하여 파스텔톤, 갈색, 회색 등의 바랜 듯한 느낌의 색상 사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한복의 장식적 요소로는 서양복의 다양한 디테일들을 차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양복의 칼라나 포켓, 단추 등의 디자인 요소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서양식 디테일은 기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프릴, 케이프, 차이니즈 컬러 등 전혀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인해 시각적 부조화가 야기되어 결과적으로 생활한복이 긍정적인 미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

도 자수, 프린트, 패치워크 등 순수한 장식적 목적에서의 전통적, 현대적 장식기법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 2. 일본 여성 전통 복식의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 특성

### 1) 전통 화복(和服)

메이지시대 일본은 구화정책(歐化政策)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량을 추진하였다. 이 중 의복 개량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첫째는 화복을 벗고 양복을 착용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화복의 결점을 없애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통 화복은 부분적으로 형태를 수정하거나, 착용 방식의 다양화, 전통 복식을 이용한 양장 형식의 모방, 양장 아이템과의 혼용 등을 통해 새로운 화양절충적 형식으로 변화해 갔다.

일본 전통 화복의 개량에 있어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의 경우 특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개량이 추진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 복식의 아이템을 새롭게 활용하거나 착장 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양복이 가진 실용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현대화가 진행되었다.

#### (1) 형식

##### a. 하카마(袴) 착용을 통한 2부식 외관 획득

메이지 시대 여성의 기모노는 3~4벌을 겹쳐입는 형식으로 정착되었는데, 가장 겉에 입는 우와기(表着) 아래로 2~3벌의 시타기(下着)를 입으며, 시타기의 가슴, 소매, 밑단 부분이 겉으로 조금씩 보이도록 착용하였다. 개화기 양장의 도입 이후 여성복에서는 전통 복식의 비실용적인 면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당시에는 서양복식의 착용이 적극 장려되는 추세였다. 예장으로는 반드시 3~4벌을 갖추고, 평상시 차림도 기본적으로 1~2벌은 갖추어 착용하는 등 전통적인 겹쳐입기 방식이 유지되었다.

메이지 시대 여성 화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모노 위에 남성의 의복이었던 하카마(袴)를 착용하게 된 것이었다.<sup>22)</sup>〈그림 5〉<sup>23)</sup> 양장 도입 이후,

그 착용이 적극 장려되는 가운데 1874년경부터 소위 지식층이었던 여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기모노 위에 하카마(袴)를 착용하는 형식이 나타났고, 이는 전통 복식의 모(裳)를 대신하는 의미로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카마 착용은 당시 유행하던 서양식 드레스의 외관과 비견되는 것이었다. 즉 긴 원피스 형식의 고소데(小袖)로 정착되었던 전통 복식 형식과는 달리, 하카마의 착용은 마치 기모노를 상의로 하고 하의로 주름치마를 입은 것과 같은 2부식의 분리된 외관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이는 양복을 직접적으로 착용하지는 않았으나 감각적으로 양복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은 과장된 오비로 몸을 조이지 않아도 되고, 기모노의 옷자락이 벌어짐으로 인해 몸이 보일 염려도 감소되는 등 자연스럽게 활동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 양장이 보급되면서 와 같이 기모노를 대신하여 블라우스를 상의로, 하카마를 하의로 입고 구두를 신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화양절충적 형식으로 지속되었다.

도입 초기의 하카마는 비교적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전통적 형태였는데, 메이지 중기로 가면서 통치마 형의 하카마가 새롭게 유행, 확산되었다. 이는 한복에서, 전통 치마를 대신하여 등장했던, 어깨허리가 달린 통치마와 비견되는 것으로 서양복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모노에 하카마를 입는 형식은 다이쇼 시대에도 계속되었고, 양장 보급이 잠시 주춤했던 1930년대 쇼와 초기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이후 본격적인 양장화가 진행되면서 세일러복의 주름치마 형태로 잠시 나타나기도 하였다.

##### b. 전통 복식을 활용한 양장의 실루엣 모방

전통 화복의 또 다른 변화는 전체적인 실루엣의 변화이다. 메이지 시대, 곧 19세기 말 서구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은 코르셋으로 인체를 통제하는 베슬 스타일과 S-실루엣이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메이지 시대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이나 개화 추종자들에 의해 그대로 수입되었는데, 당시 서구의 인위적인 곡선적 실루엣은 직선적 외관을 가진 기모노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개화파를 중심으로 이상



〈그림 5〉 블라우스,  
하카마 착용  
*KIMONO*, 2001,  
p. 101.



〈그림 6〉 좌: 1890년대 서양의 버슬스타일  
우: 버슬스타일을 모방한 기모노 착장  
*KIMONO*, 2001, p. 105.



〈그림 7〉 양장과 기모노의 slim & flat  
실루엣을 위한 속옷광고,  
*KIMONO*, 2001, p. 129.

적인 미의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전통 화복의 외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슴 부위에서 나타났다. 19세기 전반기의 기모노는 어떠한 인위적 장치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형식으로, 가슴 부위 역시 여유로운 형식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기모노의 깃이 넓어지고, 치마단과 오비에는 부분적인 패딩을 하거나, 오비의 매듭법이 다양해졌으며, 기모노의 가슴 부분을 오비 안으로 가지런히 주름 잡아 단단히 고정함으로써 편편한 가슴(mono-bosom)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그림 6〉<sup>24)</sup>과 같이 오비의 매듭을 등글고 낮게, 과장되게 묶는 것이 유행하면서, 편편한 가슴과 과장된 오비는 기모노의 실루엣을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버슬 스타일과 유사한 곡선적 외관으로 연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서양적 실루엣의 모방은 어떠한 의도나 주장에 따라 권장되거나 강제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서양 복식의 유입이 가져온 특정 스타일의 유행이 자연스럽게 전통복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1920년대 말~30년대 초 서구에서 유행하던 아르데코 양식과 가르손느 스타일은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는 양장 착용 여성들 뿐 아니라, 전통 화복을 착용하는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유행하는 실루엣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서양식 속옷이 등장하였고, 양장과 전통복식에 두루 착용되었다.(그림 7)<sup>25)</sup>은 당시의 여성 내의류 광고이다. 내의의 발전이 따로 없었고, 동일한 형태의 옷을 여러별 겹쳐 입음으로써, 안쪽에 착용한 옷을 자연스럽게 속옷으로 생각했던 일본의 내의 문화에 있어, 당시의 서양식 내의의 등장은 개념적으로도 매우 새로운 일이었으며, 이는 전통 복식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2) 장식성

양복의 도입 이후, 일본 전통 복식의 장식성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도입된 양장 자체에 나타났던 장식적 측면으로, 유행 스타일은 서양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이를 생산함에 있어 일본의 옷감을 사용하거나, 벚꽃이나 단풍 등 일본의 정서가 가미된 자수와 장식을 함으로써 일본적 미의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전통 화복에 나타났던 장식적 측면으로, 전통 화복에 서양의 옷감을 사용하고, 서양풍의 문양을 장식함으로써 일본적 전통과 서양의 조형요소가 결합된 새로운 화양절충적 양식을 만들어 내었던 측면이다.

전통적으로 기모노는 화려한 비단소재와 함께 거칠고 투박한 질감의 면이나 마소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양복의 유입 이후, 남성 양복의 소재로

쓰였던 울(wool)이 인기 직물로 부상하였고, 기존의 전통적 소재 대신 울을 사용한 기모노가 유행하였다. 문양면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서양풍의 문양이 많이 나타났는데, 아르누보 문양을 비롯하여, 줄무늬, 격자무늬 등 서양풍의 기하학적 문양이 선호되었다. 개화 초기 기모노의 색상은 이전 시대에 유행했던 청색, 남색 등의 한색계열과 회색, 검정색 등의 모노톤 계열이 변함없이 선호되었으나, 1890년대에 이르러 양장의 영향으로 좀 더 밝은 색상이나 파스텔 계열의 색조 등 다양한 색이 유행되었다. 보다 다양해지고 밝아진 색상의 기모노는 전통 문양에 새로운 서양풍 문양이 더해지면서 복식의 장식성이 강조되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2)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

한국의 경우, 생활 한복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의 등장이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반면,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 발전 속도가 달랐던 일본의 경우에는 서양복식과의 접촉을 통한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의 등장이 20세기 중반에 나타났다. 갱생복과 부인표준복은 20세기 중반 전시체제(1939~1945) 하의 일본에서 등장한 의복으로, 전통 복식 요소와 양복적 요소가 결합하여 탄생된 새로운 일본적 복식이었다. 즉, 갱생복과 부인표준복은 전통 복식이 현대화 되는 과정에서 전통 복식 자체의 개량이 아닌 전통 복식의 바탕위에 양복적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 응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제시했던 의복으로, 한국의 생활한복과는 그 등장 배경 및 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조형적으로 볼 때, 단순한 의복 개량의 범주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동서접충적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생활한복과 비견되는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이라 하겠다.

### (1) 갱생복(更生服)의 형식과 장식성

1937~1945년, 전시체제하의 일본은 경제 상황 악화와 국가의 통제 강화에 따라 의생활은 궁핍해지고, 새로운 의복의 생산 또한 제한되었다. 이에 기존의 것을 재생하여 사용하자는 운동이 장려되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모노를 고쳐 만든 갱생복이 등장

하였다.〈그림 2〉 갱생복은 기모노의 옷감을 그대로 이용하여 양장 형식으로 디자인 되었는데, 당시 잡지에서 갱생복 특집을 다루고, 복장 학원에서는 갱생복 전시가 열렸으며, 백화점에서 갱생복을 취급할 정도로 보급되었다. 갱생복은 상의와 스커트의 2부식을 기본으로 양장의 형식을 취했으나, 세부적인 디자인은 전통 기모노의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겉옷 상의의 깃은 전통적인 기모노의 직선깃이며, 안에 반쳐 입은 옷 역시 직선적인 여밈의 원피스 형식으로 보여진다. 또한 머리에는 이전 시대에 유행했던 양장의 크로셰와 비슷한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복 형식에서 화양절충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갱생복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물자를 절약하기 위한 의도로 등장했던 의복이었으므로 기모노의 옷감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기존의 기모노 소재가 가진 색채와 문양의 상징적 의미는 약화되고 시각적 이미지만 차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재 자체의 색채나 문양 등을 제외하고 별도의 장식성은 극히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부인 표준복의 형식과 장식성

1942년 제정된 전시체제하의 부인표준복(그림 3, 4)은 갑형, 을형 및 활동의로 구성되었는데, 갑은 양복식, 을은 화복식이었다. 갑형과 을형은 다시 1부식과 2부식으로 구성되었고, 갑이나 을형의 상의를 바지와 함께 착용하는 것을 활동의로 지정하였다.<sup>26)</sup> 비슷한 시기, 양복 형식으로만 제정되었던 남자의 국민복과는 달리 부인표준복은 양복과 화복의 두 형식으로 제정되었는데, 실제로는 두 형식 모두 화양절충적 형식이었다. 예를 들어, 갑형(양복식)의 경우, 직선 깃이 달린 상의를 우임으로 착용하며, 스커트는 넓은 주름이 들어간 웨이스트로써 기모노의 요소를 배치하였다. 화복식의 경우에는, 양복의 2부 형식을 도입한 것이나, 기모노의 넓은 소매통을 좁게 하여 활동성을 증대시켰던 점 등 양복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상, 하가 분리된 2부식의 화복식 부인표준복은 개화초기 기모노 위에 하카마를 착용함으로써 연출되었던 2부식 의관에서

〈표 3〉 한, 일 여성 전통 복식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 특성의 보편성과 차별성

복식 미적특성	한국 전통 복식	일본 전통 복식						
보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식 현대성의 “변화, 기능성” 중점 추구</li> <li>- 전통 복식의 예복화</li> <li>- 음양오행에 근거한 색채 사용, 장식성 약화</li> <li>- 서양복식 요소와 전통 복식 형식이 결충된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의 등장</li> </ul>							
차별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 &amp; 서구화된 일본의 복합적 양상 반근대화, 민족주의적 분위기</li> <li>- 복식 개량 중심</li> </ul> </td><td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차원의 근대화 분위기</li> <li>- 새로운 복종(服種) 활용 및 착장방식의 변화 중심</li> </ul>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디자인 요소의 생략 및 간소화</li> <li>- 서양복식의 구조적 특성을 한복에 도입 ex. 조끼허리 통치마</li> <li>- 전통적 내의류의 간소화</li> <li>- 백의폐지, 色衣원장</li> <li>- 예복화 이후 장식의 과잉화 경향</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카마(袴) 착용 → 양복과 유사한 2부식 외관 연출</li> <li>- 착장방식 변화 통해 양장의 실루엣 모방</li> <li>- 서양식 내의류의 등장과 착용</li> <li>- 전통복식에 실용적인 양복소재와 서양풍의 문양 도입</li> </ul>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 생활한복</li> <li>- 서양복식 요소의 적극적 도입으로 단순한 개량 차원 넘어 심미성 제안</li> <li>- 서양식 구성, 여밈, 치수체계 도입</li> <li>- 다양한 장식 → 시각적 부조화 야기</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0년대 말-1940년대 전쟁기: 생활복, 부인 표준복</li> <li>- 전쟁중의 의생활 통제 목적</li> <li>- 기모노 재활용, 양복식과 화복식을 구분 → 결과적으로 한국보다 이른 시기 화양절충양식의 표현과 수용</li> <li>- 장식의 최소화</li> </ul> </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 &amp; 서구화된 일본의 복합적 양상 반근대화, 민족주의적 분위기</li> <li>- 복식 개량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차원의 근대화 분위기</li> <li>- 새로운 복종(服種) 활용 및 착장방식의 변화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디자인 요소의 생략 및 간소화</li> <li>- 서양복식의 구조적 특성을 한복에 도입 ex. 조끼허리 통치마</li> <li>- 전통적 내의류의 간소화</li> <li>- 백의폐지, 色衣원장</li> <li>- 예복화 이후 장식의 과잉화 경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카마(袴) 착용 → 양복과 유사한 2부식 외관 연출</li> <li>- 착장방식 변화 통해 양장의 실루엣 모방</li> <li>- 서양식 내의류의 등장과 착용</li> <li>- 전통복식에 실용적인 양복소재와 서양풍의 문양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 생활한복</li> <li>- 서양복식 요소의 적극적 도입으로 단순한 개량 차원 넘어 심미성 제안</li> <li>- 서양식 구성, 여밈, 치수체계 도입</li> <li>- 다양한 장식 → 시각적 부조화 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0년대 말-1940년대 전쟁기: 생활복, 부인 표준복</li> <li>- 전쟁중의 의생활 통제 목적</li> <li>- 기모노 재활용, 양복식과 화복식을 구분 → 결과적으로 한국보다 이른 시기 화양절충양식의 표현과 수용</li> <li>- 장식의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 &amp; 서구화된 일본의 복합적 양상 반근대화, 민족주의적 분위기</li> <li>- 복식 개량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차원의 근대화 분위기</li> <li>- 새로운 복종(服種) 활용 및 착장방식의 변화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디자인 요소의 생략 및 간소화</li> <li>- 서양복식의 구조적 특성을 한복에 도입 ex. 조끼허리 통치마</li> <li>- 전통적 내의류의 간소화</li> <li>- 백의폐지, 色衣원장</li> <li>- 예복화 이후 장식의 과잉화 경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카마(袴) 착용 → 양복과 유사한 2부식 외관 연출</li> <li>- 착장방식 변화 통해 양장의 실루엣 모방</li> <li>- 서양식 내의류의 등장과 착용</li> <li>- 전통복식에 실용적인 양복소재와 서양풍의 문양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 생활한복</li> <li>- 서양복식 요소의 적극적 도입으로 단순한 개량 차원 넘어 심미성 제안</li> <li>- 서양식 구성, 여밈, 치수체계 도입</li> <li>- 다양한 장식 → 시각적 부조화 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0년대 말-1940년대 전쟁기: 생활복, 부인 표준복</li> <li>- 전쟁중의 의생활 통제 목적</li> <li>- 기모노 재활용, 양복식과 화복식을 구분 → 결과적으로 한국보다 이른 시기 화양절충양식의 표현과 수용</li> <li>- 장식의 최소화</li> </ul>							

한걸음 나아간 보다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화양절충적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부인표준복은 전쟁이라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한 의복이었으므로 장식성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화복식의 경우 매우 길고 과장되게 매었던 오비의 길이를 줄이고, 기존의 옷감을 재활용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전통 기모노의 소재를 표준복에 이용하는 경우 기존 소재의 색채와 문양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는 약화되었으며, 단순한 시각적 효과만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 일 여성 전통 복식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대한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V. 종합적 논의 및 결론

한, 일 여성 전통 복식은 개항을 통한 서양복의 유입이라는 공통된 현상에 대응하여 현대화로서 반응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서양

복식 형식을 수용하였고, 전통 복식과의 갈등, 절충, 혼용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보편적 형태의 현대복식으로 귀결되었다. 양국 전통 복식은 전통 복식 자체의 변화와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의 출현이라는 공통된 두 방향으로 현대화가 진행되었는데, 현대화 과정의 현실적 대응 방식, 곧 현대화의 시기나 구체적인 조형성의 표출에 있어서는 양국의 문화적 전통 및 민족적 미의식, 역사적,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차별성을 나타내었다.

서양복의 유입 이후 양국 전통복식의 현대화는 전통복식이 가진 비실용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서양복이 가진 기능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점으로 추구되었다. 한국의 경우 복식 개량 운동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양 복식 요소의 부분적 도입과 전반적인 의복의 간소화가 진행되었다. 일본은 직접적인 복식의 개량 보다는 착장 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하카마라는 의복을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일본의 전통복식은 기존의 1부식 외관을 탈피, 마치 양장의 블라우스와 발목 길이의 스커트를 착용한 것과 같은 2부식의 외관을 획득하게 되었다.

전통 복식 현대화의 두 번째 방향은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의 등장으로, 한국의 생활한복, 일본의 간생복과 부인 표준복이 고찰되었다.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의 등장 배경 및 시기, 조형적 특성에 있어서는 양국이 차이를 보이지만, 전통 복식 자체의 변화와는 달리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복식의 기능성 뿐 아니라 심미성, 변화성을 추구하였던 동서 절충 형식이었다는 점에서는 양국이 공통된다. 20세기 중반 전쟁기에 등장했던 일본의 간생복과 부인 표준복은 기모노와 양장 형식을 결합한 화양 절충 형식이었다. 20세기 후반 등장한 한국의 생활한복 또한 전통 복식의 기본 형태를 계승하면서 부분적으로 서양 복식 요소를 도입한 절충적 형식이었으며, 순수한 시각적 효과를 의도한 다양한 디자인과 기법이 활용되면서 서양복이 가진 '장식'의 의미에 보다 근접한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 일 여성 전통 복식의 현대화 이면에는 한국과 일본이 속한 동양 문화와 서구 문화 간의 이질적 만남, 그로인한 충격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양국 전통 복식은 각각의 특수한 상황과 배경에 따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선택과 거부, 절충, 동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는데, 현대화 초기에는 양국 공히 서구 문화에 대해 저항을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국가적 차원의 근대화가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반면, 한국은 민족 주의적 입장에서 서구문물의 수용을 일체 거부하고 전통적 질서를 재정비하는 등 반(反)근대화, 반제국주의의 흐름이 보다 강하게 형성되면서 일본에 비해 전반적인 현대화의 속도가 지체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서양의 제국주의적 방식 그대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진출한 반면, 한국은 서구 문화에 대한 저항과 함께 서구 문화와 중첩된 일본 문화 및 일본에 의해 강요된 서구화, 문명화에 대한 저항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현대화에 전반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는 개화 초기, 양복의 수용과 보급이 확대되었던 상황에서 일제의 강점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대한 반발로서 양복의 보급이 주춤하고, 전통 복식으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양복 수용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본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또한 일본은 20세기 중반 전쟁기에 한, 일 여성들에게 몸뻬 착용을 강제하였는데, 종전 이후 일본은 몸뻬 착용을 통해 형성된 여성의 신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바지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양장을 수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양장화가 이루어졌으나, 한국의 경우 몸뻬는 일제의 잔재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됨으로써 해방 이후 그 착용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전통복식으로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일본에 비해 여성 복식 양장화의 시기적 지체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전통 복식 현대화에 나타난 이러한 차별성은 일본 여성 복식의 양장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 모드로의 편입이 한국에 비해 약 10~20년 이상 앞서고 있는 점이나, 전통 문화의 창조적 재구성 단계인 일본적 패션디자인의 등장과 완성 시기 또한 한국보다 앞서는 등 양국의 현대 패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구 범위의 방대함과 자료의 한계로 인해 현대화의 양상 및 사례들을 다소 포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복식의 종류 및 복식 변화의 섬세한 흐름을 간과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후속연구로는 현대 패션의 범주에서 서양 패션의 수용 및 구체적인 양장화에 관한 고찰을 제안하며, 연구의 범위를 다른 동양 문화권으로 확대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김영희 (1998). 개화기의 양복도입과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수경 (1989). 한국 여성 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혜영 (1982). 한국 여성 양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횡의숙 (1995).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개화기 이후의 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26, pp. 289-309.
- 2) 이송희 (1984). 개화기 복식의 변천과 그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1994). 한국 개화기 여성복식의 변천 요인: 집

- 단복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미애 (1994). *개화기 일본의 복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영자 (1981). 개화기 일본의 복식변천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7(1), pp. 87-99.
- 황정운 (2002). 일본 여성복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차용희 (1974). 일본 근대복식과 우리복식. *전주교육대학* 논문집, pp. 233-249.
- 남윤숙 (1992). 한일 여성복의 양장화에 관한 비교 연구. *복식*, 19, pp. 41-51.
- 장양이 (1978). 개화기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식변천 고찰.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 (1999). 19세기 개항 이후 한·일 복식제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오세영 (1995). 근대성과 현대성. *예술문화연구*, 5(1), pp. 212-213, p. 217.
- 6) 임정택 (1994). *계몽의 현대성.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p. 51-52.
- 7) 이상우 (1999). *동양미학론*. 서울: 시공사, pp. 19-20.
- 8) 김윤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1.
- 9) 김윤희 (1996). 복식의 근대성에 대한 연구. *복식* 30, pp. 127-138.
- 10) 유수경 (1990). *韓國女性洋裝變遷史*. 서울: 일지사, pp. 226, 230.
- 11) Christopher Baward (1995). *The Culture of Fashion*. New York: Manchester Univ. Press, p. 182.
- 12) Gilles Lipovetsky (1994). *The Empire of Fashion*. Catherine Porter(역), Princeton Univ. Press, p. 90.
- 13) 로쿠메이칸(1884~1887)은 일본의 영빈관이자 국제사교의 장으로서, 화려한 연회, 음악회 등이 개최되던 장소이다.
- 14) 小池三枝, 野口 ひろみ, 吉村佳子 (2000). *概說日本服飾史*. 東京: 光生館, p. 124.
- 15) 井上雅人 (2001). *洋服と日本人*. 東京: 廣濟堂出版, p. 57.
- 16) 江馬務 (1956). *日本服飾史要*. 京都: 星野書店, p. 278.
- 17) 새로운 전통적 복식형이란 서양복의 유입이후 전통 복식에 서양적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 복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생활한복을, 일본의 경우 개생복과 부인표준복을 대상으로 하였다.
- 18) 유순례 (2001). 20세기 한국 여성복에 나타난 근대성, 틈근대성, 세계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3.
- 19) 진미희 (1990). 한복 변천에 관한 연구-1950년대 이후 여자 한복을 중심으로-. *복식*, 15, p. 159.
- 20) 이인자, 이태옥 (1993). 한복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21, p. 177.
- 21) 황의숙. *앞의 책*, pp. 289-306.
- 22) Liza Dalby (2001). *KIMONO*.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 73.
- 23) *Ibid.*, p. 101.
- 24) *Ibid.*, p. 105.
- 25) *Ibid.*, p. 129.
- 26) 井上雅人. *op. cit.*, p. 53.